

가상공간에서의 대인지각: 면대면 조건과의 비교 및 성차를 중심으로*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 종 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1에서는 세 개의 실험을 통해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조건 혹은 CMC와 면대면 조건 혹은 FTF간 대인지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피험자내 설계를 이용한 실험 1에서는 4명으로 구성된 1개의 집단이 CMC조건에서 기여입학제 그리고 1주일 후 FTF 조건에서 학부제를 주제로 30분씩 찬반토론을 한 후 Big Five에 해당하는 5개의 성격특질차원에서 대인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MC보다는 FTF 조건에서 자기지각과 비교해 볼 때 타인평가가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지각자간 일치를 제외한 자기 동료간 일치와 메타지각의 정확성도 전반적으로 FTF조건에서 더 컸다. 피험자간 설계를 이용한 실험 2에서는 동성의 4명으로 구성된 17개 집단이 CMC 조건에서 그리고 또 다른 17개 집단이 FTF 조건에서 학부제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찬반토론을 한 후 실험 1에서와는 다른 5개의 성격특질차원에서 대인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실험 1처럼 CMC보다는 FTF조건에서 자기지각보다 타인지각이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각자간 일치, 자기 동료간 일치와 메타지각의 정확성에서는 조건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실험 3은 토론주제가 기여입학제라는 점을 제외하고 실험설계 각 조건의 집단 수 및 토론시간은 실험 2와 동일했다. 또한, 실험 3의 전반적 결과는 실험 1과 거의 동일했다. 연구 2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성별구성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남 남, 여 여 그리고 남 여로 이루어진 각각 1쌍은 컴퓨터를 통해 30분간 자유롭게 의사소통한 후 자신과 상대방을 Big Five에 해당하는 5개의 성격특질차원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나머지 두 조건에 비해 남 여 조건에서 상대방을 외향성과 호감성 및 교양 요인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기인했다. 또한, 자기 동료간 일치는 전반적으로 남 남 조건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CMC와 FTF 의사소통 조건 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CMC, FTF, 대인지각, 지각자간 일치, 자기 동료간 일치, 메타지각의 정확성, 성차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2-003-H00013).

† 교신저자 : 정태연,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tjung@cau.ac.kr

인간의 삶을 크게 일과 사랑 혹은 과업과 관계라고 말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우리들 삶의 행복과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관련된 요인들이 여럿 있겠지만, 특히 대인지각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은 특정 대인관계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인관계의 문제를 다룰 때 대인지각의 측면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사회심리학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를 인상형성이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대인지각의 원리를 밝히고 또한 그것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Markus & Zajonc, 1985) 주로 가상적인 지각대상자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인지각은 가상적인 인물이나 사물을 지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Malloy & Albright, 1990).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면대면 상황에서 실제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인지각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대인지각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는 면대면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됨으로써, 지금까지 실세계에 국한된 현대인들의 삶의 영역이 가상공간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의 면대면 의사소통(face-to-face communication: FTF)과는 질적으로 다른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이 현대인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CMC의 특성을 다룬 연구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한 주제 중의 하나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인지각이다. 연구 1에서는 대인지각

에서 CMC와 FTF 조건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세 개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연구 2에서는 하나의 실험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의 성별이 이들의 대인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1. 가상공간과 면대면 조건에서의 대인지각

최근 웹 사이트에서의 아이디와 아바타 형성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대중적 인기와 더불어 온라인 페르소나(online persona)라고도 불리는 CMC 상황에서의 대인지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CMC 조건과 FTF 조건 간 대인지각의 차이를 다룬 기존연구에 따르면, FTF에서는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언어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억양, 강약 및 떨림과 같은 부언어적(paralanguage) 단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손짓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nonverbal) 단서 등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Trevino, Daft, & Lengel, 1990). 이는 FTF 조건에서 상대방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얼굴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정보의 이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CMC에서의 교류양식은 주로 활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언어와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전달되는 정서적 측면들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되기 어렵다(Daft & Lengel, 1986; Hiltz, Johnson, & Agle, 1978). 이러한 정서적 정보의 교환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CMC 조건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실제보다 차갑고 무뎌뚱하며 과제 지향적인 사람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다(Hiltz, et al., 1978). 또한, CMC 조건에서는 사회적 맥락단서가 결여되어 있음으로써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시간

이 많이 걸리고 민감한 개인적 정보의 공유가 용이하지 않아(Sempsey, 1995), 대화자들 간에 경험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서로간의 친화감과 집단 응집력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Desantis & Gallupe, 1987).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직접적 대면 없이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CMC 상황에서의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은 FTF에서와는 매우 상이한 심리적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면, FTF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행위들을 스스로 검열하여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자신을 사회적 비난과 부정적 평가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억제하는 사회적 맥락 단서(social context cue)가 존재하지 않는 CMC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욕구를 억제할 필요성을 크지 느끼지 않는다(Kiesler, Siegal, & McGuire, 1984). 특히, 실험적으로 조작된 CMC 조건의 경우, 참가자들은 서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부정적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Walther, 1992).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CMC 상황에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쉽고 규제되지 않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Culnan & Markus, 1987; McGrath, 1984; McGrath & Hollingshead, 1994; Walther, 1995), 부정적 정서, 분노, 흥분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하게 된다(Rice & Love, 1987; Sproull & Kiesler, 1986). 결국, CMC가 갖는 이와 같은 의사소통양식의 제한과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은 FTF 조건에 비해 CMC 상황에서 상대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을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검증해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지각과 관련해서 함축하는 바가 큰 여타의 측면들(정태연, 1998; Kenny, 1994 참조) 즉, 다수의 지각자가 제 3자를 평가할 때 지각자들 간의 유사성(지각자간 일치), 특정 개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이 개인에 대한 타인의 평가 간 유사성(자기-동료간 일치),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나의 추측(메타지각의 정확성) 등에서 CMC와 FTF 조건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CMC 조건과는 달리 FTF 조건에서는 다양한 개인적 정보와 더불어 언어적 정보 이외에도 부언어적 단서, 비언어적 단서 등과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황상민과 한규석, 1999; Trevino, et al., 1990).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적 특성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자신이 형성한 인상을 FTF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TF 조건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적 맥락 단서나 배경정보(한혜경, 1996; Hiltz, et al., 1978)는 주어진 언어적 내용을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강력한 제약(constraints)으로 작용한다. 즉, 사회적 단서는 특정 사람이 노출한 정보를 주어진 맥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도록 유도해서 평가자들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문자에만 의존하는 CMC 상황의 경우, 주어진 양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Kiesler, et al., 1984; Kiesler, Zubrow, Moses, & Geller, 1985). 이것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FTF 조건에 비해 CMC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자에 의존하는 CMC 조건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의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Hiltz, et al., 1978). 이것은

FTF 조건과는 달리 CMC 조건에서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내용의 전달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CMC 조건에서는 이미 공유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인지각과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단하지 않고 사무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일 때, 단일한 의사소통 양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CMC 방식은 의사소통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FTF 조건에 비해 크게 낮을 수 있다(황상민과 한규석, 1999). 결국, 지금까지 논의한 가용한 의사소통 채널의 수, 이용 가능한 사회적 맥락 단서 그리고 의사소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지각자간 일치, 자가·동료간 일치 및 메타지각의 정확성이 CMC보다는 FTF 조건에서 더 높을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이러한 CMC와 FTF 조건 간 대인지각의 차이를 사회적 관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 SRM; Kenny & La Voie, 1984)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모형에서 대인지각은 타인지각, 메타지각(meta-perception) 및 자기지각으로 구분된다(Kenny, 1994). 타인지각은 A가 B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이며, 메타지각은 B가 A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A의 추측이고, 자기지각은 A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이다. SRM은 타인지각에서의 전체 분산(variance)을 지각자효과(perceiver effect), 지각대상자효과(target effect) 그리고 지각자와 지각대상자간의 관계효과(relationship effect)에 따른 분산으로 분할한다. 지각자효과에 의한 분산은 다수의 지각대상자를 평균적으로 서로 비슷하게 지각하는 정도에서 지각자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분산이다. A는 타인들을 전반적으로 '외향적'이라고 보는 반면, B는 그들을

전반적으로 '내향적'이라고 볼 때 지각자효과가 존재한다. 지각대상자효과에 의한 분산은 주어진 차원에서 지각대상자들의 평균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분산이다. 지각자들이 평균적으로 B를 C보다 더 외향적이라고 볼 때 지각대상자효과가 존재한다. 주어진 성격특질차원에서 지각대상자들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할 때, 지각대상자에 의한 분산이 커지기 위해서는 각 지각대상자를 평가하는 지각자들 간의 일치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지각대상자 효과는 지각자간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Kenny, 1994를 참조). 관계효과에 따른 분산은 (다른 지각자들과 달리) 특정 지각자만이 (다른 지각대상자들과는 달리) 특정 지각대상자만을 독특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분산이다. A만이 B만을 특별히 더 좋아할 때 관계효과가 있다. 연구 1에서는 이 중에서 의사소통 조건 간 지각자간 일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각대상자의 효과에 따른 분산을 이용하였다.

SRM은 타인지각에서처럼 메타지각의 전체 분산을 지각자효과, 지각대상자효과, 그리고 관계효과에 따른 분산으로 분할한다. 메타지각의 지각자효과는 다수의 지각자들이 자신(A)을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A의 추측이다. 예를 들면, A는 우리들이 자기를 외향적인 사람으로 볼 것이라고 추측하는 반면, B는 우리들이 자기를 내향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추측할 때 메타지각의 지각자효과가 존재한다. 메타지각에서 지각대상자효과는 A가 우리들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비슷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이다. A가 우리들을 외향적이라고 보고 B는 우리들을 내향적이라고 본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메타지각의 지각대상자효과가 존재한다. 메타지각의 관계 효과는 B가 A를 얼마나 독특하게 보는지에 대한 A의 지각이다. 예를 들면, B만이 A만을 특

별히 더 외향적이라고 지각할 것이라고 A가 판단할 때 메타지각의 관계효과가 있다. 의사소통 조건 간 차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메타지각의 지각자 효과와 타인지각의 지각대상자효과에 따른 분산간의 상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SRM을 이용하여 자기-동료간 일치(self-other or self-peer agreement)를 측정할 수 있다. 자가 동료간 일치는 나와 타인이 나 자신을 비슷하게 보는 정도로서, SRM에서 나에 대한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의 상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 자신은 물론 남들도 나를 외향적이라고 볼 때 높은 자기-동료간 일치가 존재한다.

연구 1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CMC 조건에 비해 FTF 조건에서 타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CMC에서보다는 FTF 조건에서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그리고 메타지각의 정확성 등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1에서는 세 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1은 피험자내 설계를 사용하였다. 먼저, CMC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모르는 4-5명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후 이 참가자들은 CMC 조건에서와 동일한 집단별로 FTF 조건에서 학부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에서 토론시간은 30분이었다. 실험 2는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서로 모르는 4명으로 구성된 집단은 CMC 조건과 FTF 조건 중 한 조건에서 학부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토론기간은 두 조건 모두 1시간이었다. 기여입학제라는 토론주제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실험 3과 실험 2는 동일했다. 모든 실험에서 집단구성원들은 토론 전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토론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정도를 평가했으며 주어진 토론시간

후 집단의사결정을 내렸다. 그 다음,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Big Five에 해당되는 성격특질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결과는 정태연, 김지선과 조운정(2003)에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¹⁾

실 험 1

방 법

참가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82명(남학생 48명, 여학생 34명)이 실험 1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집단 단위로 참가했는데, 각 집단은 4-5명의 동일한 성(sex)을 가진 서로 모르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전체 집단 수는 17집단으로 이들은 5명으로 구성된 14집단(남자 8집단, 여자 6집단)과 4명으로 구성된 3집단(남자 2집단, 여자 1집단)이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참가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았다.

1) 동일한 실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종속측정치를 얻어 이것을 두 개의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별 및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한 결과, 본 연구에서처럼 종속측정치가 서로 다를 때 즉 같은 자료(data)가 아닐 때 이러한 글쓰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위원장이 보내준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 관련 부분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됨을 지적하는 어떠한 조항이나 문구가 없었다. 이 점을 여기에 밝혀둔다.

측정도구

참가자들의 대인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Goldberg(1990)의 Big Five 분류체계에서 각 요인 별로 하나의 성격특질차원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외향성(extroversion)에서 '내향적인-외향적인', 호감성(agreeableness)에서 '융통성이 없는-융통성이 있는', 성실성(conscientiousness)에서 '경망스러운-진지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에서 '긴장된-편안한' 그리고 교양(culture)에서 '숙고하지 않는-숙고하는' 등의 차원을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성격특질차원에서 자신 및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다른 구성원 각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나의 추측 즉, 메타지각을 7(1부터 7까지)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실험 디자인, 장치 및 절차

각 의사소통 조건 내에서의 대인평가는 라운드-라빈 설계(round-robin design; Kenny, 1994; Warner, Kenny, & Stoto, 1979)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각 집단의 구성원들은 주어진 모든 성격특질차원에서 서로 서로를 평정하였다. 의사소통 조건 간 대인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피험자내 설계를 이용한 실험 1에서는 각 집단을 CMC 조건에서 기여입학제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한 후 정확하게 1주일 후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FTF 조건에서 학부제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했다. CMC 조건과 FTF 조건에서의 장치와 절차를 살펴보겠다.

CMC 조건

집단토론을 위해서 5대의 pc를 주어진 실험실 내 칸막이가 있는 독립된 공간에 각각 설치하였

다. 또한, 각 pc에 digito.com에서 제공하는 Soft Messenger를 설치하여 비공개 토론방을 개설함으로써, 메시지를 이용한 채팅만으로 주어진 주제 즉, 기여입학제에 대한 토론과 대인지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실험실 밖에 위치한 또 하나의 pc에도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필요시 실험자가 이 토론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pc가 놓인 책상 위에는 토론 후 평정해야 할 설문지를 놓아두었다. 각 토론자들의 id로 영어 대문자 A에서 E까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id가 적힌 카드를 각 pc 옆에 위치시켰다.

45명으로 구성된 특정 집단의 서로 모르는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그들을 도착하는 순서대로 메시지가 설치된 pc가 있는 독립된 공간에 즉시 배치하였다. 그럼으로써,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앴으며 토론 중에도 서로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가 집단토론 및 대인지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들의 id와 토론주제에 관하여 설명했으며, 토론방법과 토론의 목적 등에 관해서 알려준 후, 30분 동안 주어진 주제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집단토론이 끝난 후,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인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실험이 끝난 후,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실험과 관련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같은 집단 구성원들 간에도 1주일 동안 상호작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1주일 후에 있을 유사한 실험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FTF 조건

집단구성원들이 서로를 직접 보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실험실에 5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

치하였다. 이러한 토론 상황만을 제외하면 CMC와 FTF 조건에서의 집단토론 절차는 거의 동일했다. CMC에서와 동일한 참가자들로 구성된 특정 집단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CMC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단토론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었다. 참가자들은 A에서 E까지의 id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았는데, 각 참가자는 CMC 조건에서와는 다른 id를 부여받았다. 실험자는 참가자들에 토론주제가 학부제임을 알려주고, 토론방법과 토론목적을 설명한 후 30분 동안 집단토론을 하도록 요청했다. 토론이 끝난 후,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인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실험 후,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실험에 대한 설명(debriefing)을 제공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각 조건별로 참가자들은 자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나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한 메타지각을 다섯 개의 모든 성격특질차원에서 7(1에서 7까지)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OREMO(Kenny, 1993)를 이용하여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의사소통 조건별 평균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격특질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 정도가 CMC와 FTF 조건 간에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자기지각을 준거로 해서 각 조건별로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의 차이를 검증한 다음, 그러한 차이가 의사소통 조건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건간 타인지각의 평정치가 다른지를 비교하였다.²⁾

표 1에서 보듯이, CMC 조건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평가가 약 4.4점에서 5.2점 정도까지 분포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외향적인’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특질차원에서 타인지각과 메타지각이 자기지각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성격특질차원별로 세 평균치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내 일원분산분석(within-subject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표 1. CMC와 FTF 조건별 3가지 유형의 지각에 대한 평균치

성격특질	CMC 조건			FTF 조건		
	자기지각	타인지각	메타지각	자기지각	타인지각	메타지각
외향적인	4.59(.62)	4.73(.24)	4.83(.39)	4.59(.68) ^a	4.50(.49) ^a	4.81(.54) ^b
융통성이 있는	5.04(.44) ^a	4.64(.41) ^b	4.42(.47) ^b	5.01(.55)	4.87(.38)	4.85(.43)
진지한	4.93(.39) ^a	4.73(.28) ^{ab}	4.61(.24) ^b	5.16(.41) ^a	5.17(.37) ^a	4.93(.33) ^b
편안한	4.71(.68)	4.56(.30)	4.48(.56)	4.70(.65)	4.85(.43)	4.78(.48)
숙고하는	5.13(.51) ^a	4.74(.43) ^b	4.60(.47) ^b	5.18(.27) ^a	5.17(.31) ^a	4.95(.32) ^b

주. 평가는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성격특질차원에서 숫자가 클수록 그러한 특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분석단위는 집단으로 각 조건별 주어진 성격특질차원에서 세 개의 평균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일한 첨자를 가진 평균치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는 표준편차.

결과, ‘용통성 있는’, $F(2, 15) = 9.40, p < .01$, ‘진지한’, $F(2, 15) = 7.39, p < .01$, 그리고 ‘속고하는’, $F(2, 15) = 12.88, p < .001$,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IT 조건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평가가 약 4.6점에서 5.2점 정도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은 차이가 없었으며, 메타지각과 이 유형의 지각과의 차이는 성격특질에 따라 달랐다. 성격특질차원별로 세 평균치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향적인’, $F(2, 15) = 5.09, p < .05$, ‘진지한’, $F(2, 15) = 5.5, p < .05$ 그리고 ‘속고하는’, $F(2, 15) = 7.34, p < .01$,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메타지각이 나머지 두 유형의 지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은 차이가 없었다.

타인지각에서 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성격특질차원에서 피험자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향적인’ 차원의 점수만 FIT에 비해 CMC 조건에서 더 높은 경향성이 있었으며, $F(1, 16) = 4.23, p < .06$, 나머지 모든 차원에서는 CMC에 비해 FIT 조건에서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순서별로 $F(1, 16) = 4.98, 16.12, 11.49, 16.49, p < .05$.

기존의 연구결과(Anderson, 1968; Jung, 1998;

- 2) 2(조건: CMC와 FIT) X 3(지각유형: 자기지각, 타인지각 및 메타지각) 분산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주 관심이 2 X 3에서의 주효과나 상호작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타인지각이 조건 간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2 X 3 분산분석을 한다 해도 결국 여기서 한 분석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2 X 3 분산분석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Peabody, 1984; Rothbart & Park, 1986)를 살펴볼 때, 실험 1에서 사용한 성격특질차원에서 극단적인 수준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CMC 조건의 참가자들은 자기가 보는 것보다 남들이 자기를 더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FIT 조거에 비해 이러한 추측이 더 사실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CMC 조건과 FIT 조건 간 대인지각의 비교 결과는 FIT 조건에서보다 CMC 조건에서 상대방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각 조건별로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그리고 메타지각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지각자간 일치는 ‘외향적인’ 차원에서 가장 컸으며 ‘진지한’ 차원에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지각자간 일치는 FIT 조건에서 좀 더 커 보이지만, 단지 ‘외향적인’ $F(1, 16) = 3.41, p < .09$, 그리고 ‘속고하는’, $F(1, 16) = 3.10, p < .10$, 차원에서만 유의미하게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표 2는 자기-동료간 일치가 FIT 조건에서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각 성격차원별로 방향성을 고려하여 상관의 크기를 조건 간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성격특질차원에서의 자기-동료간 일치가 FIT 조건에서 더 컸다, 순서별로 $z = 5.17, 2.36, 5.27, 4.82, 11.54, p < .01$. 이는 CMC 보다는 FIT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동료평가와 더 일치함을 의미한다.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조건에 상관없이 ‘외향적인’ 차원에서 가장 높았다. 두 의사소통 조건 간 비교한 결과, ‘진지한’, ‘편안한’ 및 ‘속고하는’ 차원에서의 메타지각이 FIT 조건에서 더 정확한 경향이 있었다, 순서별로 $z = 1.52, p < .10, z = 1.72, p < .05, z = 1.65, p < .10$.

표 2. 각 조건별 지각자간 일치, 자가-동료간 일치 그리고 메타지각의 정확성

성격특질	조건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메타지각의 정확성	
		CMC 조건	FTF 조건	CMC 조건	FTF 조건	CMC 조건	FTF 조건
외향적인		.32 *	.50 *	.23	.78 *	.64 *	.83 *
융통성이 있는		.11 *	.15 *	.09	.43 *	.19	.11
진지한		.01	.04	-.07	.64 *	.18	.64 *
편안한		.07	.20 *	-.16	.54 *	.29	.74 *
숙고하는		.02	.13 *	-.87 *	.59 *	-.05	.48 *

주. 분석단위가 집단인 지각자간 일치는 SRM에서 지각대상자 효과에 따른 상대적 분산 혹은 전체 분산(지각자 분산+지각대상자 분산+관계분산)에서 지각대상자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여기에서 *로 표시된 상대적 분산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임을 의미. 분석단위가 개인인 자기-동료간 일치와 분석단위가 집단인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상관계수로 측정. 여기에서 *로 표시된 상관계수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임을 의미.

전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CMC보다는 FTF 조건에서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지각자간 일치는 의사소통 조건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자기-동료간 일치와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FTF 조건에서 더 큼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1이 가지는 큰 제한점은 조건별 토론주제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조건 간 대인지각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또한, 신속하게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CMC 조건에서 토론을 통한 30분간의 상호작용은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에 부족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험 2와 실험 3을 실시하였다.

실험 2

방 법

참가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136명(남학생 80명, 여학생 56명)이 실험 2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집단 단위로 실험에 참가하였는데, 각 집단은 4명의 같은 성(sex)을 가진 서로 모르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CMC 조건에 17집단(남 12집단, 여 5집단)과 FTF 조건에 17집단(남 8집단, 여 9집단)이 할당되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실험 참가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았다.

측정도구

참가자들의 대인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Goldberg(1990)의 Big Five 분류체계에서 실험 1에서 사용하지 않은 성격특질 중 각 요인별로 하나씩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외향성(extroversion)에서 ‘말이 없는-말하기를 좋아하는’, 호감성(agreeableness)에서 ‘무례한-공손한’, 성실성

(conscientiousness)에서 ‘비실제적인-실제적인’,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에서 ‘감정적인-비감정적인’ 그리고 교양(culture)에서 ‘비지적인-지적인’ 등을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성격특질차원에서 자신 및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다른 구성원 각각이 나를 볼 것인지에 대한 나의 추측 즉, 메타지각을 7(1부터 7까지)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실험 디자인, 장치 및 절차

각 의사소통 조건 내에서의 대인평가는 라운드-라빈 설계(Kenny, 1994; Warner, Kenny, & Stoto, 1979)를 통해 이루어졌다. 의사소통 조건 간 대인평가의 비교를 위해 실험 2에서는 피험자간 설계를 이용하였으며, 4명으로 구성된 각 집단은 CMC나 FTF 조건에서 1시간 동안 학부제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했다. 이러한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험 1과 동일했다(실험 1 참조).

결과 및 논의

실험 1에서처럼 실험 2에서도 각 조건별로 참가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각 구성원들에 대한 메타지각을 5개의 성격특질차원에서 7(1에서 7까지)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OREMO(Kenny, 1993)를 이용하여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의사소통 조건별로 평균치들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CMC 조건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평가가 약 4.2점에서 5.0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성격특질차원별로 세 평균치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손한’, $F(2, 15) = 3.76, p < .05$, 및 ‘실제적인’, $F(2, 15) = 6.15, p < .05$, 차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메타지각이 다른 두 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CMC 조건에서 타인지각이 자기지각과

표 3. CMC와 FTF 조건별 3가지 유형의 지각에 대한 평균치

성격특질	조건	CMC 조건			FTF 조건		
	지각유형	자기지각	타인지각	메타지각	자기지각	타인지각	메타지각
말하기를 좋아하는		4.54(.63)	4.59(.28)	4.64(.34)	4.71(.61)	4.81(.49)	4.95(.51)
공손한		4.85(.64) ^{ab}	4.99(.45) ^a	4.68(.48) ^b	5.10(.64) ^a	5.45(.61) ^b	5.07(.42) ^a
실제적인		5.04(.51) ^a	4.88(.39) ^{ab}	4.75(.40) ^b	4.88(.47) ^a	5.25(.41) ^b	4.98(.42) ^a
비감정적인		4.29(.73)	4.25(.43)	4.23(.51)	4.13(.71) ^a	4.50(.51) ^b	4.17(.60) ^a
지적인		4.63(.52)	4.77(.31)	4.61(.52)	4.69(.54) ^a	5.22(.47) ^b	4.78(.47) ^a

주. 평가는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성격특질차원에서 숫자가 클수록 그러한 특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분석단위는 집단으로 각 조건별 주어진 성격특질차원에서 세 개의 평균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일한 첨자를 가진 평균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는 표준편차.

차이가 없음을 지적해 준다. FTF 조건의 경우 세 유형의 평가가 약 4.2점에서 5.5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CMC에서처럼 이들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말하기를 좋아하는’ 차원을 제외한 모든 성격특질차원에서 세 평균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순서별로 $F(2, 15) = 7.19, 5.51, 6.39, 9.68, p < .05$, 서로 차이가 없는 자기지각과 메타지각이 타인지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타인지각에서 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성격특질차원에서 피험자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차원에서 FTF 조건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공손한’, ‘실제적인’, ‘지적인’ 차원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순서별로 $F(1, 32) = 6.23, 7.01, 10.54, p < .05$. 결국, CMC 조건과 FTF 조건에서의 이러한 결과들은 CMC 조건에서보다 FTF 조건에서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각 조건별로 측정된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

간 일치 그리고 메타지각의 정확성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지각자간 일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차원에서 가장 컸다. 모든 성격특질차원에서 지각자간 일치는 두 의사소통 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동료간 일치도 ‘말하기를 좋아하는’ 차원에서 가장 컸는데, 성격특질차원별로 방향성을 고려하여 상관의 크기를 조건 간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손한’과 ‘실제적인’ 차원에서 자기-동료간 일치가 FTF 조건에서 더 컸으며, 순서별로 $z = 1.87, 4.48, p < .05$, ‘비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자기-동료간 일치는 CMC 조건에서 더 컸다, $z = 1.80, p < .05$.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자기-동료간 일치에서 의사소통 조건 간에 일관적인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메타지각의 정확성 역시 조건에 상관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차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성격특질차원에 의사소통 조건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어떠한 성격특질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CMC

표 4. 각 조건별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그리고 메타지각의 정확성

성격특질	조건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메타지각의 정확성	
		CMC 조건	FTF 조건	CMC 조건	FTF 조건	CMC 조건	FTF 조건
말하기를 좋아하는		.44 *	.58 *	.46 *	.59 *	.58 *	.79 *
공손한		.11 *	.12 *	-.09	.20	-.02	.27
실제적인		.12 *	.09	-.05	.61 *	.14	.38 *
비감정적인		.20 *	.16 *	.40 *	.14	.44 *	.42 *
지적인		.24 *	.20 *	.31 *	.15	.28	.20

주. 분석단위가 집단인 지각자간 일치는 SRMP에서 지각대상자 효과에 따른 상대적 분산 혹은 전체 분산 지각자 분산+지각대상자 분산+관계분산)에서 지각대상자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여기에서 *로 표시된 상대적 분산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임을 의미. 분석단위가 개인인 자기-동료간 일치와 분석단위가 집단인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상관계수로 측정. 여기에서 *로 표시된 상관계수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임을 의미.

보다는 FTF 조건에서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및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의사소통 조건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의사소통 간 대인지각의 차이가 사용한 성격특질차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3에서는 새로운 성격특질형용사를 이용해 대인지각을 측정해 보았다.

실험 3

방 법

참가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136명(남학생 76명, 여학생 60명)이 실험 3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집단 단위로 실험에 참가하였는데, 각 집단은 4명의 동일한 성(sex)을 가진 서로 모르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CMC 조건에 17집단(남 9집단, 여 8집단)과 FTF 조건에 17집단(남 10집단, 여 7집단)이 할당되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실험참가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았다.

측정도구

참가자들의 대인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Goldberg (1990)의 Big Five 분류체계에서 실험 1과 2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섯 개의 성격특질차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외향성(extroversion)에서 ‘비사교적인-사교적인’, 호감성(agreeableness)에서 ‘차가운-따뜻한’, 성실성(conscientiousness)에서 ‘경솔한-신중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에

서 ‘불안정한-안정된’ 그리고 교양(culture)에서 ‘교양 없는-교양 있는’ 등을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성격특질차원에서 자신 및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다른 구성원 각각이 나를 볼 것인지에 대한 나의 추측 즉, 메타지각을 7(1부터 7까지)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실험 디자인, 장치 및 절차

각 의사소통 조건 내에서의 대인평가는 라운드-라빈 설계(Kenny, 1994; Warner, Kenny, & Stoto, 1979)를 통해 이루어졌다. 의사소통 조건 간 대인평가의 비교를 위해 실험 3은 피험자간 설계를 이용하였는데, 4명으로 구성된 각 집단은 CMC나 FTF 조건 중에서 1시간 동안 기여입학제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했다. 이러한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험 1 및 2와 동일했다(실험 1 참조).

결과 및 논의

실험 3에서도 각 조건별로 참가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나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한 메타지각을 다섯 개의 성격특질차원에서 7(1에서 7까지)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OREMO(Kenny, 1993)를 이용하여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의사소통 조건별 평균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CMC 조건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평가가 약 4.6점에서 5.2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성격특질차원별로 세 평균치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내

표 5. CMC와 FTF 조건별 3가지 유형의 지각에 대한 평균치

성격특질	조건	CMC 조건			FTF 조건		
	지각유형	자기지각	타인지각	메타지각	자기지각	타인지각	메타지각
사교적인		5.19(.48) ^a	5.06(.40) ^a	4.84(.30) ^b	4.50(.59)	4.86(.50)	4.70(.56)
따뜻한		4.69(.64)	4.88(.57)	4.85(.46)	4.28(.43) ^a	4.78(.58) ^b	4.56(.63) ^b
신중한		4.74(.42)	4.78(.33)	4.56(.47)	4.75(.64) ^a	5.00(.41) ^a	4.51(.49) ^b
안정된		4.87(.49)	4.87(.44)	4.72(.52)	4.56(.46) ^a	5.18(.46) ^b	4.63(.56) ^a
교양 있는		4.90(.59)	5.05(.26)	4.89(.49)	4.53(.42) ^a	5.15(.46) ^b	4.56(.35) ^a

주. 평가는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성격특질차원에서 숫자가 클수록 그러한 특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분석단위는 집단으로 각 조건별 주어진 성격특질차원에서 3개의 평균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일한 첨자를 가진 평균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는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교적인’ 차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F(2, 15) = 10.30, p < .01$,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은 서로 차이가 없었고 메타지각이 이 두 유형의 지각보다 낮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CMC 조건에서 자기지각과 타인지각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FTF 조건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평가가 약 4.3점에서 5.2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CMC에서처럼 평균치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교적인’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원에서 세 평균치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순서별로 $F(2, 15) = 8.12, 8.90, 17.39, 14.11, p < .01$, 전반적으로 타인지각이 자기지각보다 높았으며, 메타지각과 자기지각과의 차이는 특질차원에 따라 다양했다. 마지막으로, 두 조건 간 타인지각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피험자 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교적인’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원에서의 점수가 FTF 조건에서 더 높았으며, ‘안정된’ 차원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이 있었다, $F(1, 32)$

$= 3.86, p < .06$.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타인지각의 단순비교는 조건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자기지각과 비교해 볼 경우에는 CMC보다는 FTF 조건에서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각 조건별로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그리고 메타지각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지각자간 일치는 전반적으로 성격특질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보이며, ‘교양 있는’, $F(1, 34) = 5.91, p < .05$, 차원에서만 두 의사소통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FTF 조건에서 지각자간 일치가 더 컸다. 자기-동료간 일치에 대하여 성격차원별로 방향성을 고려하여 상관의 크기를 의사소통 조건 간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따뜻한’ 차원을 제외한 모든 성격특질차원에서 CMC에 비해 FTF 조건에서의 자기-동료간 일치가 유의미하게 더 컸다, 순서별로 $z = 3.51, 6.34, 3.58, 3.25, p < .001$.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자기-동료간 일치가 FTF 조건에서 더 크다는 것을 보

표 6. 각 조건별 지각자간 일치, 자가-동료간 일치 그리고 메타지각의 정확성

성격특질	측정치	지각자간 일치		자가-동료간 일치		메타지각의 정확성	
	조건	CMC 조건	FITF 조건	CMC 조건	FITF 조건	CMC 조건	FITF 조건
사교적인		.22 *	.15 *	.22	.65 *	.42 *	.58 *
따뜻한		.16 *	.20 *	.15	.12	.13	.29
신중한		.10 *	.04	.00	.76 *	.17	.87 *
안정된		.14 *	.14 *	.10	.58 *	-.18	.40 *
교양 있는		.00	.14 *	.00	.47 *	.00	.45 *

주. 분석단위가 집단인 지각자간 일치는 SRM에서 지각대상자 효과에 따른 상대적 분산 혹은 전체 분산 지각자 분산+지각대상자 분산+관계분산)에서 지각대상자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여기에서 *로 표시된 상대적 분산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임을 의미. 분석단위가 개인인 자기 동료간 일치와 분석단위가 집단인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상관계수로 측정. 여기에서 *로 표시된 상관계수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임을 의미.

여준다.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조건에 상관없이 ‘사교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각 성격특질차원에 조건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신중한’, ‘안정된’ 및 ‘교양 있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 순서별로, $z = 3.07$, $p < .01$. $z = 1.60$, $p < .10$, $z = 1.28$, $p < .10$.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험 1과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MC보다는 FITF 조건에서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각자간 일치, 자가-동료간 일치 및 메타지각의 정확성에 관한 결과 역시 실험 1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즉 지각자간 일치는 의사소통 조건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자가-동료간 일치와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FITF 조건에서 더 큰 강한 경향이 있었다.

연구 2. 가상공간에서의 성별에 따른 대인지각의 차이

연구 1은 전반적으로 CMC보다는 FITF 조건에

서 대인지각이 더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CMC 조건에서의 대인지각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연구 2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이다. 실세계에서 대인관계가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는지를 발달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기에는 우선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인관계나 우정관계 연구들을 성차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러한 현상이 가상공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대인관계에서의 성차는 매우 어린 시기부터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약 3세 된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동성 간에 더 많이 했으며, 이성 간의 상호작용 시 남자는 상대 여아의 행동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고, 여아는 남아에 비해 수동적이며 혼자 있거나 남아가 노는 것을 바라보거나 혹은 어머니

니를 찾는 행동을 한다(Jacklin & Maccoby, 1978). 초등학교시기에는 우정에 대한 인식 즉, 충실성 정서적 지지, 상호 돕기 등의 개념이 발달하고 친밀성 및 함께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Furman & Bierman, 1984). 이 때, 이성보다는 동성과 함께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보고 선호하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친밀성에 대하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은 아마도 남학생들이 활동적이고 격렬한 놀이에 더 많이 몰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Buhrmester & Furman, 1987).

우정관계에서의 이러한 성차는 청년기까지도 지속되는데, 이들은 이성보다는 동성들과의 상호 작용을 더 선호한다. 이 시기의 여자들은 같은 성의 유사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관심이 많은 반면, 남자들은 좀 더 다양한 동성의 사람들과 활동 중심으로 우정을 발달시킨다(Maccoby & Jacklin, 1974; Roy, Benenson, & Lilly, 2000; Smith, 1997). 여자들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하고(Berndt, 1982), 자기노출이 친밀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Collins & Miller, 1994), 감정이입적이다(Douvan & Adelson, 1966). 그러나 이 시기의 남자들은 활동 중심으로 우정을 발달시키고,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성을 더 쉽게 찾는다(Cancian, 1987). 한국의 대학생 연구에서도 이성친구보다 동성친구에게서 관계만족도가 더 높았고 보상이 더 컸으며 관계의 깊이와 친밀성도 더 컸다(이경연, 2002).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녀 모두 이성보다는 동성 간의 우정관계를 선호하는데, 이것은 이성 간의 관계가 동성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성 간의 우정관계는 동성 간에 비해 더 늦게 발달하여 대체로 청소년기 이후에 이성과의 우정관계가 나타난다(Sharabany,

Gershoni, & Hofman, 1981). 또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는 동성 간의 우정과 이성 간의 성적 관계를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최재석, 1982; Monsour, Harris, Kurzweil, & Beard, 1994), 특히, 청년기 이후 이성 간의 우정은 이성과의 성적관계를 통한 정서적 성숙과 성적 수용을 반영하기 때문에(김수정, 1991), 이성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 초6~대1 학생들의 경우 이성에 대한 친밀성은 동성에 대한 그것보다 낮았으며 이는 이성에 대한 감정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관심을 겉으로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수정, 1991).

기존의 연구들은 이성 간의 대인관계에서 몇몇 성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대학생 커플에 대한 연구에서(Rubin, 1975) 남학생들은 더 쉽게 그리고 더 빨리 사랑에 빠졌으며, 이후에 이들 중 헤어진 커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헤어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남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했다. 또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상대방에 비해 많은 발언권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송관재, 2003). 이러한 주도권의 문제는 남녀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할 수 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더 주도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한 반면, 여성은 자신을 덜 표현하고 억제하며 온순하고 조용하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존재한다(김영희, 1988; 정진경, 1989). 이러한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도 이러한 고정관념에 일

치하도록 맞춘다는 점이다(방희정, 1997). 이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조용하고 겸손하며 순응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서 남녀 간의 성차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대인관계 시 남자들은 공격적이고 강한 자기주장을 펼치며 자신들을 선전하고 권위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논의를 주도하는 반면(Sutton, 1996), 여성들은 보다 긍정적이고 이해하는 태도를 취하며 감사의 표시를 잘 한다(Herring, 1994).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가상공간이든 현실이든 간에 공격적이고 자기주장적인 행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남녀의 행동적 특성이 가상공간에서 전도됨을 보여준다. 인터넷 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 다른 성격체성을 실험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성격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Bruckman, 1993; Turkle, 1995). 그래서 남성들이 나약함, 의존성 등의 감정표현과 같은 여성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 등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남성 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온라인 상에서 남자들은 상대 여성을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성적 희롱을 시도하는 등 성적 차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Barnes, 2002).

전체적으로 볼 때,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가 관여하는 사람들의 성별 즉,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남녀 간의 차이가 가상공간에서는 감

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Barnes,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두 사람의 성별구성에 따라 대인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면대면과 가상공간에서의 대인지각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이성보다는 동성의 두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90명(남 45명, 여 45명)이 연구 2의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2.49(2.22)세이었고, 1학년 19명(21.1%), 2학년 27명(30.0%), 3학년 20명(22.2%), 4학년 24명(26.7%)이었다. 이들의 타이핑 능력은 7점 척도 상에서 4.87(1.13)이었으며 1분에 338.81(156.86)타를 칠 수 있었다. 채팅은 7점 척도 상에서 3.47(1.57) 정도 했으며, 1주일 평균 2.08(3.22)시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로 의사소통하는데 익숙한 정도는 7점 척도 상에서 4.89(1.47)이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실험참가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았다.

측정도구

참가자들의 대인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Goldberg(1990)의 Big Five 분류체계에서 각 요인별 5개 총 25개의 성격특질형용사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외향성(extroversion)에서 '내향적인-외

향적인', '활력이 없는-활력이 넘치는', '조용한-말을 많이 하는', '소심한-대범한' '비사교적인-사교적인', 호감성(agreeableness)에서 '차가운-따뜻한', '불친절한-친절한', '비협동적인-협동적인', '이기적인-이타적인', '무례한-공손한', 성실성(conscientiousness)에서 '정돈되지 않은-정돈된', '책임감이 없는-책임감이 강한', '비실제적인-실제적인', '태만한-성실한', '부주의한-철두철미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에서 '화가 난-차분한', '긴장된-긴장하지 않는', '걱정하는-마음 편안한', '변덕스러운-평온한', '화를 잘 내는-마음씨 좋은', 그리고 교양(culture)에서 '호기심이 없는-호기심이 많은', '창조적이지 않은-창조적인', '세련되지 못한-세련된', '상상력이 없는-상상력이 풍부한', '교양 없는-교양 있는' 등을 선정하였다. 2명으로 한 쌍을 이뤄 상호작용하는 참가자들은 이러한 성격특질차원에서 자신 및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타인을 7(1부터 7까지)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다.

실험 디자인, 장치 및 절차

연구 2에서는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의 성별 구성에 따라 서로에 대한 인상 및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남, 여-여, 남-여 등 2명으로 이루어진 각 15쌍이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는 피험자간 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2명 1조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4대의 pc를 주어진 실험실 내 칸막이가 있는 독립된 공간에 각각 설치하였다. 각 pc에 digito.com에서 제공하는 Soft Messenger를 설치하여 비공개 토론방을 개설하여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채팅할 수 있도록 했다. pc가 놓인 책상 위에는 토론 후 평정해야 할 설문지를 놓아두었다.

실험은 회기 당 2쌍씩 이루어졌는데 4명의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오는 순서별로 주어진 실험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자리에 앉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볼 수 없도록 했다. 실험자는 실험의 목적, 과정 및 평가 등을 포함하는 실험 지시문을 이들에게 읽어주었다. 그 다음, 참가자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해진 다른 한 명과 30분간 채팅을 하도록 했다. 그 후,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인평가 및 의사소통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실험이 끝난 후, 실험자는 참가자들에게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연구 2의 결과 부분에서는 크게 대인지각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의 성별 구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고 두 사람의 성별 구성조건에 따라 자기-동료간 일치 정도를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ig Five의 각 요인은 5개의 특질형용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각 요인의 점수는 이러한 5개 형용사에 대한 평정치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성별조건 별로 자가지각과 타인지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남-남의 경우, 정서안정성에서 타인지각이 자가지각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1, 58) = 8.45, p < .01$. 여-여 조건의 경우, 호감성, $F(1, 58) = 4.83, p < .05$, 정서안정성, $F(1, 58) = 21.34, p < .001$, 요인에서 타인지각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남-여 조건의 경우, 외향성, $F(1, 58) = 7.77, p < .01$, 교양 $F(1, 58) = 5.41, p < .05$, 요인에서 자가지각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지만, 정서안정성, $F(1, 58) = 5.83, p < .01$, 요인에서는 타인지각이 유의미하게 더 높

표 7. 성별조건별 Big Five 차원에서의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의 평균치

성별조건 및 지각유형 Big Five	남-남 조건		여-여 조건		남-여 조건	
	자기지각	타인지각	자기지각	타인지각	자기지각	타인지각
외향성	4.58(1.00)	4.80(.92)	4.57(1.14)	4.72(1.03)	4.77(1.13) ^a	4.10(.69) ^b
호감성	4.95(.62)	5.13(.61)	4.90(.71) ^a	5.28(.63) ^b	4.74(1.01)	4.75(.69)
성실성	4.74(.77)	4.66(.60)	4.83(.99)	5.03(.74)	4.34(1.20)	4.78(.84)
정서안정성	4.36(.88) ^a	4.94(.64) ^b	4.16(.79) ^a	5.07(.74) ^b	4.42(.76) ^a	4.94(.90) ^b
교양	4.93(.78)	4.67(.62)	4.91(.83)	4.71(.71)	5.07(.89) ^a	4.55(.84) ^b

주. 평가는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요인에서 숫자가 클수록 그러한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각 성별조건 별 각 성격요인에서 서로 다른 첨자를 가진 평균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는 표준편차.

았다.

또한, 타인지각에서 성별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를 각 요인별로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향성과 호감성 요인에서 성별조건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각각 $F(2, 87) = 5.53, p < .01$, $F(2, 87) = 5.34, p < .01$. 어떤 조건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요인 모두에서 남-남과 여-여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남-여 조건의 평가가 나머지 두 조건의 평가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정서안정성 차원에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에서 조건 간 차이가 없음을 함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남-여 조건에서는 다른 조건에 비해 외향성과 교양 차원에서 상대방을 낮게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남 조건과 여-여 조건을 비교하면 동성의 두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 자기지각 및 타인지각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표 7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측면에

서 성차가 없었다. 이 두 조건과는 달리 남-여 조건을 분석하면 이성의 상대방을 평가할 때 성차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남-여 조건에서 남자와 여자의 자기지각과 상대방이 한 지각을 성격요인별로 계산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앞의 연구방법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쌍으로 상호작용한 후, 남자는 자신과 여자 상대방을 그리고 여자는 자신과 남자 상대방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이용하여, 자기지각과 이성의 상대방에 의한 지각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남녀에 따라 각 성격요인별로 피험자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자의 경우 외향성과 교양 차원에서 자기지각보다는 상대방에 의한 지각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각각 $F(1, 28) = 10.89, p < .01$, $F(1, 28) = 19.95, p < .001$. 여자의 경우, 성실성과 정서안정성 차원에서 자기지각보다는 상대방에 의한 지각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각각 $F(1, 28) = 7.23, p < .05$, $F(1, 28) = 7.21, p < .05$. 또한, 표 8에서 보듯이, 외향성과 교양 차원에서

표 8. 남-여 조건에서 자기지각과 상대방에 의한 지각의 평균

성별 지각유형 Big Five	남		여	
	자기지각	상대방 여자가 본 지각(Me)	자기지각	상대방 남자가 본 지각(Me)
외향성	4.93(1.15) ^a	3.87(.50) ^b	4.61(1.13)	4.33(.78)
호감성	4.75(1.20)	4.65(.85)	4.73(.82)	4.85(.50)
성실성	4.60(1.26)	4.55(.88)	4.08(1.11) ^a	5.01(.75) ^b
정서안정성	4.44(.87)	4.76(.99)	4.40(.66) ^a	5.12(.80) ^b
교양	5.35(.72) ^a	4.11(.80) ^b	4.79(.98)	4.99(.64)

주. 지각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요인에서 숫자가 클수록 그러한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분석은 남녀 별로 두 유형의 지각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각 성격요인에서 서로 다른 첨자를 가진 평균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는 표준편차.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방을 유의미하게 더 높게 평가하거나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 각각 $F(1, 28) = 3.78, p < .07$, $F(1, 28) = 11.09, p < .01$.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연구결과(Anderson, 1968; Jung, 1998; Peabody, 1984; Rothbart & Park, 1986)를 살펴볼 때, 연구 2에서 사용한 성격특질 차원에서 극단적인 수준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연구 2의 남-여 조건에서 얻은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이성의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함축해 준다.

성별조건별 자기지각과 타인에 의한 지각 간의 상관 즉, 자기-동료간 일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세 성별조건 중 남-남 조건에서 외향성과 교양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는 자기-동료간 일치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여-여 조건과 남-여 조건의 경우,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일치정도는 매우 작거나 부적이었다.

자기-동료간 일치가 높기 위해서는 한쪽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노출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히 처리할 필

표 9. 성별조건별 자기-동료간 일치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성별조건	Big Five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안정성	교양
남-남		.46 ^{**}	.28	.00	.22	.31 ⁺
여-여		.20	.12	.08	-.05	-.33 ⁺
남-여		.33 ⁺	-.06	-.05	.08	.10

⁺ $p < .10$ ^{**} $p < .01$

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연구 2의 결과는 동성의 남성들이 상호작용할 때 서로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다른 조건에 비해 많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Big Five에 속하는 다양한 성격특질을 이용하여 CMC와 FTF 조건 간 대인지각의 차이 및 CMC에서의 대인지각에 성차가 있는지를 일련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전반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지각과 메타지각은 두 조건에서 비슷했지만, 외향성과 교양차원에서의 타인지각은 CMC보다는 FTF 조건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연구 2에서 얻은 가상공간에서의 대인지각은 외향성과 교양 차원에서 성차가 있었는데, 동성보다는 이성 간에 상대방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여성이 상대 남성을 낮게 평가했다. 둘째, SRM의 지각대상자효과에 따른 분산으로 측정된 지각자간 일치는 두 의사소통 조건 간에 일관적인 차이가 없었다. 셋째, 성격특질차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동료간 일치와 메타지각의 정확성은 CMC보다는 FTF 조건에서 더 큰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의 자기-동료간 일치는 여-여 및 남-여 조건보다는 남-남 조건 특히, 외향성과 교양차원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논의 하겠다.

연구 1에서는 Big Five의 다양한 성격특질차원을 이용하여 CMC와 FTF 조건에서 자기지각, 타인지각 및 메타지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모든 실험에서 의사소통 조건에 상관없이 외향성 요인에 속하는 성격특질차원에서의 자기

지각과 타인지각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표 1, 3, 5 참조). 그러나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Big Five에 속하는 성격특질차원의 경우, 참가자들의 자기평가와 비교해 볼 때, 이들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CMC 조건에서는 더 낮거나 비슷했지만 FTF 조건에는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타인지각에 대한 조건 간 비교에서도 전반적으로 FTF 조건에서 타인평가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연구를 볼 때(Anderson, 1968; Jung, 1998; Peabody, 1984; Rothbart & Park, 198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특질차원은 극단적 수준을 제외하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CMC 상황에서는 나에 대한 상대방의 지각이 내 자신의 지각과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지만, FTF 상황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의사소통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보이는 서로 다른 행동특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FTF 상황은 CMC와는 어느 정도 상반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FTF 상황에서는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회적 실재감이 크고(Short, Williams, & Christie, 1976), 지위나 외모적 단서 혹은 성별 등에 의해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위계질서나 상대방의 특정 반응을 억제하는 사회적 맥락 단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상대화에서 말 가로 채기에 관한 연구를 보면, 주로 남성이 여성의 말을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말을 중단시켰다(Molotch & Boden, 1985).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처럼 집단 토론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 특히, 다수의 의

견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적 표현을 절제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FTF 조건에서 사람들은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개진할 경우에도 CMC 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CMC보다는 FTF 상황에서 타인들의 주의나 관심을 끌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Kiesler et al., 1984; Sproull & Kiesler, 1986), 언어적인 매개체 뿐만 아니라, 부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채널의 이용 및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Trevino, et al., 1990). 이러한 점들은 CMC 보다는 FTF 조건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CMC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고(Kiesler, et al., 1984) 부정적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물리적 보복이 없기 때문에(Escobar 1994; Rheinhold, 1993)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할 필요가 크지 않다. 이러한 탈억제(disinhibition)는 때로 CMC 조건에서 부정적인 언어(Culnan & Markus, 1987; McGrath, 1984; McGrath & Hollingshead, 1994; Walther, 1995)와 부정적인 정서표현(Rice & Love, 1987; Sproull & Kiesler, 1986)을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전자게시판이나 대인간 의사소통이 관련된 웹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욕설과 감정적 비난의 표현들이 흔하게 존재하고 있다. 익명성 이외에 CMC 상황에서의 제한된 채널 역시 탈억제를 부추길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여러 수준의 비언어적 단서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Trevino, et al., 1990), 미묘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워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상태를 더욱 강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Kiesler, et al., 1984). 또한, CMC 조건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착각에 빠져 강력한 자기주장을 하기 쉽고 기계에 몰입하는 강한 느낌 때문에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다(Diener, 1980). 가상공간의 이러한 여러 특성들 때문에 타인에 대한 평가가 FTF 조건에 비해 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1의 자가지각과 타인지각 간 차이의 패턴이 실험 및 의사소통 조건에 따라 크게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실험 1의 경우, 기여입학제를 사용한 CMC 조건에서 자가지각은 타인지각보다 ‘용통성 있는’과 ‘속고하는’ 차원에서 낮았지만, 학부제를 사용한 FTF 조건에서는 모든 차원에서 두 지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부제를 사용한 실험 2의 경우, CMC 조건에서는 모든 차원에서 두 지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FTF 조건에서는 ‘말하기를 좋아하는’을 제외한 4개의 차원에서 타인지각이 더 높았다. 기여입학제를 사용한 실험 3의 경우, 두 조건 모두 실험 2의 결과와 매우 유사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실험 1의 결과가 나머지 실험 결과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하나의 이유를 실험 설계에서 찾을 수 있다. 실험 1의 경우 피험자내 설계를 사용함으로써 전이효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CMC 조건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을 한 1주일 후 면대면 조건에서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전이효과가 크지 않았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로 사용한 성격특질의 차이이다. 비록 Big Five 중에서 동일한 요인에 속하는 특질형용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연구 2의 결과는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성별구성에 따라 Big Five의 몇몇 요인에서 대인지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안정성 차원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성별조건에서 자기지각보다는 타인지각이 높았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조건에서 CMC의 전반적인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CMC 상황에서는 정서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Daft & Lengel, 1986; Hiltz, et al., 1978), 과제 중심적 의사소통이나 사무적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Hiltz, et al., 1978). 결국, 정서적 교환의 부족이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강해서 정서안정성 차원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2의 결과는 동성에 비해 이성 간에 사람들은 상대방을 외향성과 교양 요인에서 더 낮게 평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높은 외향성은 적극적 상호작용과 개방적 자기노출을 함축한다. 이성 간의 낮은 외향성은 기존의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 특히 청년기의 연구결과에서 얻은 성차와 일치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이성보다는 동성 간의 상호작용을 더 선호할 뿐 아니라 자기노출도 동성 간에 더 크다(이경언, 2002; Furman & Bierman, 1984; Maccoby & Jacklin, 1974; Roy et al., 2000; Smith, 1997). 이것은 아마도 이성관계에서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성적인 특성이 관여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문화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강해서(김수정, 1991; 최재석, 1982; Monsour et al., 1994), 이성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과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신을 개방하고 드러내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또한, 교양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자기지각보다 타인지각이 더 낮았으며 특히, 이성조건에서 그 차이가 더 컸다. 이것은 아마도 교양은 지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바, 연구 2에서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대화에서 지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기 어렵고,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표 8 참조)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지적

인 측면을 보이기가 어렵거나 여자가 남자의 지적인 측면을 낮춰 평가하는 신중성 혹은 보수성에 근거할 수 있다.

또한, 연구 2의 결과는 이성 간의 상호작용에서 전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방을 성격차원에서 좀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외향성의 경우 남녀 모두 자기평가보다는 상대방이 평가한 점수가 낮았지만, 특히 남자의 경우 그러한 정도가 컸다. 실제상황에서의 이성 간의 상호작용을 다룬 기존연구를 보면, 남자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주도하고자 하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데(송관재, 2003), 이것은 남녀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강력한 영향력에 근거할 수 있다(김영희, 1988; 방희정, 1997; 정진경, 1989).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자가 평가한 상대 남자의 낮은 외향성은 이러한 주도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신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은 외향성을 보였다는 것은 가상공간이 가지는 익명성으로 인해 이러한 남녀차이가 전도되어(Barnes, 2002; Bruckman, 1993; Turkle, 1995), 여자들이 현실세계에서보다 더 자기주장적이고 자기노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기의 사람들도 동성보다는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데 대인관계의 기술, 자기개방, 대화주제 등의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남자들의 낮은 외향성은 이들이 가상공간에서 여자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마지막으로, 외향성 이외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상대 남자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이성에 대해 남자보다는 더 신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Rubin, 1975)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상대 남성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

는데, 본 연구 결과가 이러한 점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FTF 조건에서 타인지각이 자기지각과 적어도 비슷하거나 혹은 보다 더 높아 긍정적이었다. 기존의 서구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강한 자기고양육구가 있어서 남들이 보는 것보다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면, 한국석, 2002; 홍대식, 1994; Fiske & Taylor, 1991 등을 참조). FTF 조건에서 얻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자기고양육구의 측면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험 2와 3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반대적인 경향이 강했다. 한국 대학생의 대인지각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정태연, 1999, 2000; 정태연, 김종대와 김도환, 1999), 성격특질차원에서 자기고양육현상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르는 사람들 간의 대인평가, 매우 친밀한 친구들 간의 대인평가 그리고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각 학년별 학생들 간의 대인평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자료들이 보이는 전반적인 추세는 타인평가보다 자기평가가 더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즉, 평가의 긍정성보다는 극단성이 더 두드러져서, 타인평가는 척도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는 반면 자기평가는 이에 비해 더 극단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처럼 자기주장이나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타인과의 조화나 그들에 대한 배려 혹은 집단의 의견에 대한 수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극단적인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정 성격특질차원에서 자신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중간수준에 해당되는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타인

들은 관찰된 행동에 근거하여 이 사람을 그 성격특질차원에서 중간수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이 사람은 자신의 실제 성격특성을 고려해서 자신을 좀 더 극단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1에서 메타지각의 경우, 두 의사소통 조건 모두에서 메타지각은 실험 1의 몇몇 성격차원에서는 자기지각보다 낮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성격특질차원에서는 서로 비슷했다. 이것은 기존 연구결과들과 상당히 일치한다(문헌조사를 위해서는 Kenny, 1994 참조).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타인마다 서로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방식대로 타인도 나를 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한편, 전반적으로 CMC에서의 메타지각은 타인지각과 매우 유사하지만 FTF에서의 메타지각은 타인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FTF 조건에서의 사람들은 사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FTF 조건에서 사람들이 갖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이나 부정적 인상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맥락에서처럼,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인상이나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에 대한 상대방의 인상을 제대로 추측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지각자간 일치가 외향성 요인에서 전체적으로 약 .35로 가장 컸으며 나머지 요인들에서는 대략 .10에서 .20 정도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서구연구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 Kenny, Albright, Malloy와 Kashy(1994)

는 407개의 성격특질과 2,934명의 참가자를 포함한 32개의 연구 자료를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처럼 집단으로 단기간 상호작용한 후 대인평가를 한 경우 지각대상자의 상대적 분산으로 측정된 지각자간 일치는 외향성에서 .32였으며 나머지 요인에서는 .10에서 .16수준이었다. 기존의 많은 비교문화연구와 더불어(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본 연구의 결과도 대인지각에서 지각자간 일치의 정도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유사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예측과는 달리 지각자간 일치의 정도가 CMC와 FTF 두 의사소통 조건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CMC에 비해 FTF 조건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Kiesler, et al., 1984, 1985),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이용함으로써 메시지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전달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Hiltz, et al., 197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FTF의 이러한 장점이 지각자간 일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지각자간 일치가 공유된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비슷한 해석이나 신체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특정 지각대상자에 대한 특정 지각자만의 독특한 인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Kenny,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CMC조건에 비해 FTF 조건에서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공유된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의 교정 기회가 많다는 것은 자기-동료간 일치와 메타지각의 정확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FTF 상황과는 달리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정체감의 일부만 제시할

수 있다(황상민과 한규석, 2002).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상호작용은 전인적 만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만을 제시하는 만남이기 쉽다. 특히, CMC 조건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부정적인 행동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과 동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FTF 조건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및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사회적 맥락단서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구 2의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자기-동료간 일치는 남-남 조건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현실 세계에 대한 연구들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자신을 잘 드러내고 개인적인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며 감정이입적임을 지적한다(Berndt, 1982; Collins & Miller, 1994; Douvan & Adelson, 1966). 그러나 남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자기-동료간 일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은 남자들이 가상공간에서 개인적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을 노출하여 서로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것 역시 가상공간에서 남녀의 특성이 전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arnes, 2002; Bruckman, 1993; Turkle, 1995).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 1에서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및 메타지각의 정확성이 외향성 요인에서 가장 컸으며, 연구 2에서도 자기-동료간 일치가 전체적으로 외향성 요인에서 가장 높았다. 이것은 다른 성격요인에 비해 외향성 요인이 갖는 그 독특함에 기인한다. 기존의 연구들도 여러 성격 요인 중에서 외향성이 매우 독특함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상호작용 없이 첫 대면에서도 외향성 요인에서는 상대적 분산에서 .30 정도의 지각자간 일치가 있었다(Kenny, et al., 1994). 또한, 상호작용 없이 첫 대면에서 상대방

의 외향성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도 상당히 높았다(Levesque & Kenny, 1993). 뿐만 아니라, 네 개의 기존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자기-동료간 일치도 외향성에서 가장 높았다(Kenny, 1994).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기존의 발견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대인지각에서 외향성에 대한 평가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독특함을 지적해 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토론주제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대인지각의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기존의 연구들도 대인지각의 긍정성 정도를 CMC와 FTF 조건에서 비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대인지각에서 중요한 측면인 지각자간 일치, 자기-동료간 일치 및 메타지각의 정확성 등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사실, 이러한 대인지각의 측면들을 FTF 조건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CMC 조건에서 살펴본 연구나 이 두 조건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성별구성이 그들의 대인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많지 않다. 이성 간의 상호작용이 동성 간의 그것에 비해 늦게 발달한다는 여러 발달적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FTF와 CMC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가 CMC 상황에서의 연구주제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가장 큰 제한점은 CMC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장기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1에서와 같이 CMC의 대인지각이 FTF 조건에서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CMC 조건에서의 대인지각이 늘 부정적인 것만

은 아님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는 3주 이후부터 긍정적인 수준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는 FTF 조건에서의 수준과 동일했다(Walther & Burgoon, 1992). 또한, CMC 조건에서 비인간적이며 과제 중심적인 초기의 의사소통이 교류가 지속될수록 성장배경, 지위, 교육 등 상대방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인간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Walther, 1992).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동시적 CMC 상황 - 동시적 CMC는 채팅이나 쪽지 보내기, MUD game, web cam - 에서는 사회적 맥락단서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모티콘(emoticon)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형태의 의사소통이 생기면서 정서적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황상민과 한규석, 1999). 이러한 경우 문자만을 이용한 의사소통보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FTF 조건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훨씬 낮았다. 두 번째 제한점은 실험 참가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내용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 내용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는데 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 번째 한계는 연구 1에서 발견된 실험결과의 비밀관성이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비밀관성이 아마도 사용한 특절형용사의 차이에도 기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는 의사소통하는 두 조건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대인지각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혀줄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정 (1991). 청소년기에 있어 동성친구와 이성

- 친구에 대한 우정의 발달적 변화. 심리학연구, 18, 33-41.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 검사. 아세아여성연구, 27, 153-182.
- 방희정 (1997). 성고정관념. 홍순정 외, 여성심리학, pp. 81-114. 서울: 교육과학사.
- 송관재 (2003). 성차이의 심리. 서울: 선학사.
- 이경언 (2002). 동성친구와 이성친구 간의 우정에 대한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1989).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황과 그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술진홍재단 자유공모과제 보고서.
- 정태연 (1998). 매개변인이 평가자간 일치에 미치는 효과: 연구결과와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81-198.
- 정태연 (1999). 대학생 또래들 간의 대인지각. 원자료.
- 정태연 (2000). 사관학교 학생들 간의 대인지각. 원자료.
- 정태연, 김종대와 김도환 (1999). 대인지각의 유형별 탐색 및 각 유형에 대한 조정변인 접근의 검증. 미발표논문.
- 정태연, 김지선과 조운정 (2003). 가상공간과 면대면 조건간 집단극화의 차이에 관한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1(3), 96-141.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 한혜경 (1996).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의 비교연구: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언론사회문화, 통권 제 5호, 65-90.
- 홍대식 (1994). 사회심리학. 청암미디어.
- 황상민 (2000). 사이버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서울: 김영사.
- 황상민과 한규석 (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 Anderson, N. A. (1968). Lik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trait wo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72-279.
- Barnes, S. B. (2002). 온라인 커넥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이동후와 김은미 역). 서울: 한나레. (원저는 2001년 출판됨).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ruckman, A. S. (1993). Gender swapping on the internet. *Proceeding from Inet*, 1993.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ancian, F. M. (1987). *Love in America: Gender and self-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ns, N. L., & Miller, L. C. (1994).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 457-475.
- Culnan, M. J., & Markus, M. L. (1987). Information technologies. In F. M. Jablin, L. L. Putnam, K. H. Roberts, & L. W. Porter (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pp.420-443). Newbury Park, CA: Sage.
- Daft, R., & Lengel, R. H. (1986). Organization information requirement, media richness, and structural design. *Management Science*, 32(5), 554-571.
- Desautels, G., & Gallupe, R. B. (1987). A Foundation for the study of Group Decision Systems. *Management Science*, 33(5), 589-609.

-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Edinger, J. A., & Patterson, M. L. (1983). Nonverbal involvement and social control. *Psychological Bulletin*, 93, 30-56.
- Escobar, A. (1994). Welcome to cyberia. *Journal of Current Anthropology*, 35(3), 211-231.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915-981. New York: McGraw-Hill.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urman, W., & Bierman, K. L.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A multimethod study of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925-931.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Herring, S. (1994).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Bringing familiar baggage to the new fronti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Miami, FL.(Available at: <http://cpsr.org/cpsr/gender/herring.txt>).
- Hiltz, S. R., Johnson, K., & Agle, G. (1978). *Replicating bales problem-solving experiments on a computerized conference system*(Report 8). Newark: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erized Conferencing and Communication Center.
- Jacklin, C. N., & Maccoby, E. E. (1978). Social behavior at thirty-three months in same-sex and mixed-sex dyads. *Child Development*, 49, 557-569.
- Jung, T. (1998). *A new look at moderator variables of agreement: The role of target standing*. 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Kenny, D. A. (1991). A general model of consensus and accuracy in interperson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98, 155-163.
- Kenny, D. A. (1993). *SOREMO: A FORTRAN program for the analysis of round-robin data structur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onnecticut.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A social relations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enny, D. A., & La Voie, L. (1984). The Social Relations Model.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8, pp. 142-182). Orlando, FL: Academic Press.
- Kenny, D. A., Albright, L., Malloy, T. E., & Kashy, D. A. (1994). Consensus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cquaintance and the Big Five. *Psychological Bulletin*, 116, 245-258.
- Kiesler, S., Siegel, J., & McGuire, T.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1134.
- Kiesler, S., Zubrow, D., Moses, A., & Geller V. (1985). Affect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1, 77-104.
- Levesque, M. J., & Kenny, D. A. (1993). Accuracy of behavioral predictions at zero acquaintance: A social relation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78-1187.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Garth, J. E. (1984). *Groups, interaction and performance*.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cGrath, J. E., & Hollingshead, A. B. (1994). *Groups interacting with technology*. Beverly Hills: Sage
- Molotch, H. L., & Boden, D. (1985). Talking social structure: Discourse, domination and the watergate hearing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June, 273-288.
- Monsour, M., Harris, B., Kurzweil, N., & Beard, C. (1994). Challenges confronting cross-sex friendships: "Much ado about nothing?" *Sex Roles*, 31, 55-77.
- Peabody, D. (1984). Personality dimensions through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384-403.
- Rheinh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Addison-Wesley.
- Rice, R. E., & Love, G. (1987). Electronic emotion: Socioemotional content in a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network. *Communication Research*, 14, 85-108.
- Rothbart, M., & Park, B. (1986). On the confirmability and disconfirmability of trait concep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31-142.
- Roy, R., Benenson, J. F., & Lilly, F. (2000). Beyond intimacy: Conceptualizing sex differences in same-sex friend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 93-102.
- Rubin, G. (1975). The traffic in women. In R. R. Reiter (Ed.), *Toward an anthropology of women*, pp. 157-221. New York & London: Monthly Review Press.
- Sempsey, J. (1995). The psycho-social aspects of multi-user dimensions in cyberspace. [Http://www.netaxs.com/jamesiii/mud.htm](http://www.netaxs.com/jamesiii/mud.htm).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E. (1981). Girlfriends,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00-808.
- Short J., Williams, E., & Christie, B. (1976).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 London: Wiley.
- Smith, T. E. (1997). Adolescent gender differences in time alone and time devoted to conversation. *Adolescence*, 32, 483-496.
- Sproull, L., & Kiesler, S. (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 1492-1512.
- Sutton, L. A. (1996). Cocktails and thumbtacks in the old west: What would Emily Post say? In L. Cherny & E. R. Weise (Eds.), *Wired women*, pp. 169-187. Seattle: Seal Press.
- Trevino, L. K., Daft, R. L., & Lengel, R. H. (1990). Understanding manager's media choices: A symbolic interactionist perspective. In J. Fulk & C. Steinfield (Eds.), *Organization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p. 71-94), Newbury: Sage.
- Turkle, S.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internet*. New York: Simon & Schuster.
- Walther, J. B., & Burgoon, J. K. (1992). Relational communication in computer-mediated inter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9(1), 50-88.
- Walther, J. B. (1992). Interpersonal effects in computer-mediated interaction: A relational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19, 52-90.
- Walther, J. B. (1995). Relation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xperimental observations

over time. *Organization Science*, 6, 186-203.

Warner, R., Kenny, D. A., & Stoto, M. (1979). A new round robin analysis of variance for social interaction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799-810.

1 차원고접수일 : 2003. 10. 13

최종원고접수일 : 2003. 12. 11

KCI

Person Perception in Cyber-space: Focused on Comparisons with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Gender differences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Jong-Dae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tudy 1 composed of three experiments examined differences in person perception between computer-mediated (or CMC) and face-to-face (or FTF) communications. In Experiment 1, each of 17 groups of 4-5 discussed a donation entrance system through CMC and a week later a college-based university system through FTF communication mode for half an hour. Then members of a given group rated each other along with self-ratings on five personality traits. Results indicated that in FTF than CMC condition, ratings of others were more positive and also self-peer agreement and meta-accuracy were larger in spite of no large difference in inter-judge agreement between two communication modes. In Experiment 2, 17 groups of 4 in each of the CMC and FTF condition discussed a college-based university system for an hour. Then group members rated each other on another five trait dimensions. Although ratings of others were more positive in FTF than CMC condition, there no systematic differences in two types of agreement and meta-accuracy between the two communication modes. In Experiment 3, 17 groups of 4 in each of the CMC and FTF condition discussed a donation entrance system for an hour and then group members rated each other on five trait dimensions different from those used in Experiment 1 and 2. The findings replicated Experiment 1. Study 2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person perception in CMC. Fifteen dyads for each of the man-man, man-woman, and man-woman conditions communicated for an half hour in CMC and then rated each other along with self ratings on 25 personality trait dimensions.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rated their partners more negatively for extroversion, agreeableness and culture factors, which was due mainly to woman's negative evaluations for their male partners. Also, self-peer agreement was the largest in the man-man communication conditi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differences between CMC and FTF communication modes.

key words : CMC, FTF, Interpersonal perception, Inter-judge agreement, Self-peer agreement Meta-accuracy, and gender differences.